

---

# 스웨덴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

장 신 미\*

---

## 차 례

- I. 서 론
- II.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 방법론
- III.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의 과정과 내용
- IV. 4개국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의 결과와 적용
- V. 결론

## 1. 서 론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교육체제 개혁을 본격화하여 1960년대 초 전기 중등과정을 포함한 9년간의 통합형 의무교육체제를 완성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개혁으로 1971년 각기 다른 유형의 후기중등학교들은 하나의 학교로 통합되었고 1991년 모든 계열의 교육기간이 통일되고 단일한 졸업자격이 주어짐으로써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sup>1)</sup>가 완성되었다.

---

\* 홍익대학교

1) 유럽의 경우 고등학교는 미국식 명칭인 high school 보다는 upper secondary school로 통칭되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교육에 해당하는 단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는 유럽에서 시도된 가장 급진적인 개혁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Marklund, 1978: 197-206).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중등교육은 자유·교양·인문교육으로서의 일반교육과 동일시되어 왔다. 특정의 전문적·직업적 목표를 지닌 직업교육은 중등교육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인식되었고 이러한 분리는 계급적 분리와 결합하여 위계적 교육체제를 구축하였다.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중반까지도 중등교육은 대중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과 명확히 구분된 엘리트 교육이었고 중등학교들은 엄격히 위계화 되어 있었다. 유럽의 학교들은 복선제를 기본으로 출신 계급에 조응하는 몇 단계로 등급화 되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성립과 맞물려 중등교육의 개혁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정책적 필요 속에 각 국은 공통적으로 중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추진하였고 기존의 체제를 대중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등교육의 성격을 규정짓던 엘리트주의와 교육의 대중화에 수반된 평등주의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1890년대 이후 중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개혁하여 1930년대까지 통합적 고등학교 모델을 형성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의 중등교육 개혁은 각 국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각각 1962년, 1972년에 전기중등교육단계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도 1975년에 중등교육의 하급단계를 12-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콜레주(collèges)로 통합시키는 개혁이 단행되었다(이윤미, 2002: 63). 반면, 영국과 독일에서는 종합학교의 설립이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중등학교들을 대체하지 못하고 병존하게 되면서 복선제 체제의 해소에 성공하지 못하였다(이규환, 1997; Heidenheimer, 1974).

전기중등단계의 통합을 이룬 국가들에서도 후기중등단계의 개혁은 또 다른 양상을 띠었다. 스웨덴과 비슷하게 강력한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을 진행한 핀란드는 스웨덴을 모델로 삼은 9년제 기초학교(basic school)의 설립을 통해 전기중등과정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스웨덴이 전기중등과정의 통

---

계의 교육을 후기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으로 명기한다.

합 이후 곧이어 후기중등단계의 통합으로까지 나아간 반면 핀란드는 후기중등단계까지 통합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1973년 정부 위원회의 후기중등학교 통합 제안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좌초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학문계열과 직업계열 학교의 통합이 제기되었으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책화되지 못하였다(Telhaug et al., 2006: 256-257; Ahonen, 2001: 197-198). 1975년에 전기중등교육을 통합한 프랑스에서도 직업계열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직업바칼로레아의 도입은 1985년에야 이루어졌다.

전기중등단계의 통합마저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후기중등학교까지 통합한 스웨덴의 개혁은 매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중등교육체제는 복선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부터 시작한 개혁을 통해 1960년대 초 전기중등과정을 포함한 9년간의 통합형 의무교육체제를 구축하였고 1970년대 이후 후기중등학교들을 통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20세기 중반의 시대적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이다. 또한 전근대시대 이래로 중등교육의 원리로 작동해 온,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를 평등주의에 기반한 통합으로 대체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통합형 중등교육체제 형성 과정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의 교육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인 동시에 이들 간의 수직적 위계가 조정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엘리트교육과 대중교육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이 변화되는 교육적 과정인 동시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힘들 간의 길항작용을 거치며 일반-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이 재설정되는 정치적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스웨덴 사회의 역사 사회적 맥락 속에 전개되었고 이 맥락에서 배태된 조건들의 작동 결과가 통합형 체제의 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스웨덴 중등교육 개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개혁이 통합형 체제의 형성으로 귀결되는데 작용한 조건들을

1971년과 1991년 개혁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2.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 2.1 종합학교 개혁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에서는 상층계급 중심의 라틴문법교육과 하층계급 중심의 식자위주의 대중교육이 분화되어 있었고 교육에서 교회의 주도성이 높았다(이윤미·장신미, 2011: 103). 19세기부터 개혁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 주창되고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을 위한 공통의 학교(a common school for all children)’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어 갔으나 기존의 복선제 지지 세력이 다수를 점한 의회 내에서는 이를 현실화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1918년 보편참정권의 도입으로 의회권력분포가 급변하면서 복선제 교육체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사민당은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한 뒤 1922년 학교개혁위원회를 통해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복선제를 폐지하고 초등학교들을 6년제 공통교육기관인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로 통합하여 이를 중등교육과 연계하는 학교체제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개혁안은 전사회적인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의회권력 교체가 빈번했던 1920년대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 결국 복선제를 존치시키면서 공통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절충안의 형태로 시행되었다(Boucher, 1982: 14-15; Paulston, 1968: 40-55).

1922년 개혁안은 애초의 원안대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지만 복선제에 대한 공적 토론을 본격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정치권을 비롯한 전사회적 관심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계급별, 성별, 지역별 불균등을 낳는 중등교육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1929년 미국 발 대공황에 따른 30년대의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교육 문제는 국가 정책의 주요 의제에서 멀어졌고 개혁의 부재는 교육체제의 문제를 계속 누적시켰다.

1930년대에 잠복했던 복선제 문제는 기존 체제의 문제점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학교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3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파시즘의 부상과 2차 대전의 발발은 복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나치의 등장과 독일 민주주의의 몰락, 이어진 전쟁의 발발은 민주적 가치의 강화 발전에 대한 학교교육의 역할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학문 중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독일 교육의 성격과 유사한 스웨덴 교육체제의 엘리트적, 권위주의적 특성에 대한 경고 속에 문법학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하는 교육 요구에 대응하여 중등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복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 하여 국가적·사회적 통합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가가 의문시되었던 것이다(Lindensjö, 1992: 316-320; Boucher, 1982: 16-23; Paulston, 1968: 77-87; Husén, 1965: 183-184).

1940년 재개된 교육개혁은 1945년 사민당이 단독 집권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나치의 몰락으로 2차 대전이 종료되자 민주주의는 스웨덴 사회의 ‘슈퍼 이데올로기’가 되었다(Englund, 1988: 13).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교육체제는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복선제를 옹호하던 친독일적 성향의 보수적 학문 진영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취약해진 보수당 등 정치적 우파가 대항적인 교육 담론을 내세우지 못하는 가운데<sup>2)</sup> 사민당이 주창한 평등과 통합은 교육체제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개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갔다.

1946년, 의무교육 개혁을 위한 학교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기존의 모든 초등학교와 전기중등학교들을 9년제 종합학교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곧이어 조기분리/선발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의무교육체제의 교육적·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2) 전후 보수당은 사민당의 조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에 집중하면서 교육문제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다. 종합학교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수당은 이 문제를 몇몇 정치인에게 위임하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종합학교 개혁에 대한 반대는 보수당 등 부르조아 정당들 보다는 보수적인 언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Lundahl, 1989: 200.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다. 9년제 종합학교안에 대하여 LO와 초등교사노조<sup>3)</sup>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나 인민고등학교운동 등 대중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들이 찬성 진영을, 중등교사노조<sup>4)</sup>와 교수 등의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들이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Telhaug et al., 2006: 252-253; Heidenheimer, 1974: 392; Paulston, 1968: 119-124). 1948년 사민당은 10년의 시범운영을 제안하였고 자유당의 중재로 시범운영의 결과를 본 후 종합학교 도입을 결정한다는 수정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Lindensjö, 1992: 321-322; Paulston, 1968: 136-138).

1950년부터 시작된 종합학교 시범운영은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과 학생 인구 팽창에 대응하는데 종합화 프로그램이 편리하다고 본 지방정부들의 관심 속에 5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Husén, 1969: 479; 1965: 187, Norinder, 1957: 259-260). 종합학교 도입이 점차 기정사실화되면서 찬반 대립의 핵심 사항이었던 분리(differentiation)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8학년까지의 전면적 통합교육 후 마지막 학년인 9학년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계열별(이론, 일반, 직업)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6학년 이후 선발에 의한 능력별 집단 편성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절충하여 6년간의 완전통합교육, 7, 8학년에서의 과목 선택 및 일부 과목에서의 능력별 집단 편성 허용, 9학년에서의 계열 분리라는 정치적 합의안이 도출되었다(Marklund & Bergendal, 1979: 27-28; Husén, 1965: 191).

‘비스뷔 합의(Visby Agreement)’<sup>5)</sup>로 불리는 이 안에 대하여 기존의 문법학교 진영만 반대하였다. 각 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반대 입장이던 보수당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중등교사노조의 강한 비판으로 보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1962년 법안이 통과되었다(Lindensjö, 1992: 324; Heidenheimer, 1974: 396).

3) 1879년 조직된 인민학교 교사조합의 후신으로 이후 보육교사, 직업학교 교사 등을 포괄하는 교사노조인 Lärarförbundet (LF)로 발전한다.

4) 1913년 김나지움 교사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인 Lärarnas Riksförbund (LR)이다. 이후에도 중등학교 교사 중심의 성격을 유지한다.

5) 비스뷔(Visby)는 이 합의를 도출한 회의가 열린 곳의 지명이다.

전기중등단계에서 사실상 계열별 분리를 존속시킨 채 출발한 종합학교는 1968년에 계열 분리를 폐지한 완전 통합학교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예상을 벗어난 급속한 이론계열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었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1962년 교육법의 중요한 토대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종합학교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론계열 선택 학생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종합학교 도입이 완료되어 가던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이론계열 선택 학생이 전체의 2/3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학생·학부모들이 종합학교 졸업 이후 후기중등학교 진학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선택의 자유와 적절한 계열 분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의회는 계열 분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Marklund & Bergendal, 1979: 18-21).

1969년 종합학교 도입이 완료되면서 9학년 계열 분리를 폐지하고 공통 교과와 이수 단위를 늘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동시에 여학교가 폐지되면서 모든 종합학교가 공학화되었다. 이로써 전기중등교육의 통합이 완성되었고 의무교육단계에서 복선제는 완전히 사라졌다(Boucher, 1982: 31; 이규환, 1971: 104).

## 2.2 1971년 후기중등학교의 통합

2차 대전 이후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스웨덴에서는 중등교육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기계제 생산이 본격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노동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가 증대되는 동시에 종합학교 개혁의 영향으로 후기중등학교 진학 요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법학교 중심의 기존 중등교육체제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고(6)

6) 1950년대까지도 중등학교의 절대 다수는 전통적인 문법학교인 레알스콜라(전기중등단계)와 김나지움(후기중등단계)이었다. 종합학교의 도입과 맞물려 김나지움 취학률은 1946년 7.8%에서 1963년 23.2%로 급증하였는데 여전히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25% 가량이 정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김나지움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었다. 또한 고전적인 라틴문법교육이 주를 이루는 일반계가 김나지움 입학생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기술계, 상업계 김나지움은 그 수의 절대 부족으로 입학 희망자의 1/2 ~ 2/3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Dahllöf, 1986: 19; 1966: 73-74.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 또한 노사 간의 이견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살트세바덴(Saltsjöbaden) 협약 이후 스웨덴 노총((Landsorganisationen, 이하 LO)과 경총(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이하 SAF)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업교육 문제를 협의, 조정하였다. 1940년대 들어 노동력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노사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도제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결합하고 그 비용을 기업과 국가가 분담하는 독일식 모델을 준거로 한 직업교육 논의는 그 방식과 대상 범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직업교육체제의 정비는 1950년대 초까지 계속 지연되었다. (Nilsson, 2009: 9-14).

2차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950년대에 접어들자 직업교육체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사민당 정부는 독일식 직업교육 제도의 도입 시도 대신 공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국고지원의 상한을 없애버린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들의 직업학교 증설로 이어졌다.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립 직업학교들이 흡수하면서 전일제(full-time) 직업학교 입학생 수는 3배로 늘어났다 (Lundgren, 2007: 7; Nilsson, 1983: 35-36). 노사가 주도하는 작업장 중심의 도제교육 방식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일제교육 방식으로 직업교육의 대세가 전환되면서 직업교육은 ‘학교교육’화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 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주요 의사 결정자인 노동정책의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종합학교 개혁이 일단락되고 기존 중등학교들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0년대 들어 후기중등단계 학교체제의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1964년 직업학교와 김나지움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2년제 계속학교(fackskola, continuation school)가 설립되었다. 계속학교는 보건, 교육 등 서비스 부문의 팽창과 함께 9년제 의무교육과 학문중심 김나지움 사이의 중간 교육수준 노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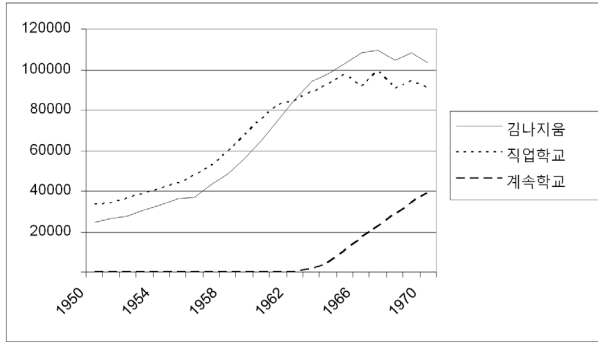
김나지움으로 불리는 학생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계속학교는 김나지움과 같은 지역에 설립되었고 대개의 경우 같은 건물에 지어져 학교 행정을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여러 면에서 김나지움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동시에 노동 및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 경우 종합학교 졸업 자격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인교육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Lundgren 1982, 11-12; Dahllöf, 1966: 74-75).

1966년에는 기존의 일반계, 기술계, 상업계 김나지움들이 단일한 김나지움으로 통합되었다. 기존 학교들의 교육과정은 새 김나지움에서 5개의 계열로 정비되었고 인문 계열에 치중되었던 정원 비율도 노동시장 예상 수요에 맞춰 조정되었다. 동시에 김나지움과 계속학교, 직업학교 간의 학생 이동이 허용되었다(Nilsson, 2009: 16; Dahllöf, 1966: 84-89).

1960년대 중등학교들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후기중등학교는 모두 무상화되었다. 학교 예산과 교사 급여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 정부로 교부되었다. 후기중등학교로의 진학 과정에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6-21세의 모든 학생들에게 월정액의 학생 수당이 지급되었고 학교가 멀어 별도의 통학 수단이나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었다. 성인 학생에게는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었다(Boucher, 1982: 34; Lundgren, 1982: 11; Marklund 1979: 16; Dahllöf, 1966: 82-91).

종합학교 도입이 완료되고 중등학교들이 정비되면서 후기중등학교 진학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김나지움 진학이 직업학교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김나지움 학생 수는 직업학교 학생 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양자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다. 계속학교의 등장과 함께 직업학교의 학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60년대 후반에는 증가세가 멈추고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lt;그림 0&gt; 학교 유형별 학생 수, 1950-1970 (출처: Nilsson, 2009, p.15.)



이론계열로의 쏠림 현상은 ‘직업교육의 위기’로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 김나지움과 계속학교에 대한 선호는 학생들이 가능한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갖기 원해서라고 해석되었다. 노조 대표들은 직업교육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주장하였다(Nilsson, 2009: 15-16).

직업학교 입학생 수의 감소가 직업교육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직업학교, 계속학교, 김나지움이라는 세 유형의 후기중등학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 통합 제안은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 LO는 물론 SAF도 통합에 찬성하였다. 종합학교 개혁과정에서 전기중등 단계의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등교사노조(이하 LR)도 종합학교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후기 중등교육체제 개혁 계획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존 김나지움의 중등교사들이 통합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7) 전통적으로 초등 및 직업교육 교사들에 비해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중등교사들에게 학교 통합은 전통적인 우월적 지위의 하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개혁으로 중등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등교사들의 특권적 지위는 유지되기 어려웠고 이는 곧 현실화되었다.

1966년 임금협상에서 사민당 정부는 LR이 소속된 전문직노조연맹

7) 1948년 종합학교 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김나지움 교사들 사이에서는 종합학교 개혁이 결국 통합 김나지움에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광범위하게 표출된 바 있었다. Paulston, 1968: 115.

(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이하 SACO<sup>8)</sup>)의 노조들과 임금인상을 합의하면서 몇 가지 조항에서 LR을 제외하였다. 종합학교 개혁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LR은 파업에 돌입하였고 SACO는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 해 임금협상에서 SACO는 대부분의 LO 노조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 인상을 관철한 터였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 파업이 특권적인 고소득층이 육체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초등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평등화’ 명분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LR의 파업은 고립되었고 결국 실패하였다(Heidenheimer, 1976: 61-65; 1974: 406<sup>9)</sup>).

1966-67년에 제안, 논의된 학교 통합안에 LR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치적 반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1968년 후기중등학교 통합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동시에 종합학교 9학년의 계열 분리가 폐지되면서 모든 종합학교 졸업자에게 후기중등교육 접근권이 주어졌다. 1970년 김나지움 졸업자격시험(studentexamen)이 폐지되고 1971년 새로운 통합형 후기중등학교인 김나지에스콜라(gymnasieskola)가 출범하였다(Nilsson, 2009: 17; Marklund & Bergendal, 1979: 15).

### 2.3 1991년 직업교육의 3년제화

통합된 후기중등학교에서 이전 김나지움에서의 5개 계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제각각이었던 직업계열의 교육기간은 모두 2년제로 통일되었다. 이와 함께 직업계열에 일반 교과가 도입되고 계열 간 학생이동이 허용되면서 직업계열 학생들에게도 제한적이거나 고등교육 진학 기회가 부여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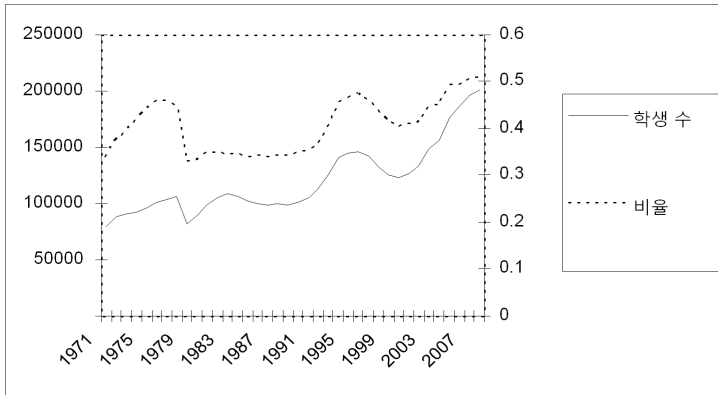
8) 1947년 결성된 대졸 전문직 중심의 노조 연합체이다. 1971년 현재 의사, 변호사, 중등교사 등 7개 전문직 노조가 가입해 있었고 이 중 LR이 최대 가맹단체였다. 초등교사노조는 사무직노조연맹인 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TCO)에 가입해 있었다. Heidenheimer, 1976.

9) 1971년 LR을 포함한 SACO의 파업은 “luxury strike”라고 조롱받았고 심지어 전통적인 동맹 정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였다. Heidenheimer, 1976: 64-65.

다(Marklund, 1978: 200; Skolöverstyrelsen, 1971).<sup>10)</sup>

통합 이후 후기중등학교 진학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65년 46%였던 진학률은 70년대 말에는 85%에 이르렀다(Boucher, 1982: 104; Paulston, 1968: 108). 그 중에서도 직업계열 입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71년 전체 후기중등학교 학생의 1/3 정도를 차지했던 직업계열은 몇 년 후 45%까지 그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직업계열 입학은 급감하였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림 1> 직업계열 학생 수와 전체 후기중등학교 학생 수 대비 비율, 1971-2008



(출처: Nilsson, 2009, p.18)

직업계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들의 비판의 초점은 서로 달랐다. 노조는 통합이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11)</sup> 그러

10) 국어, 체육, 노동시장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외국어, 수학, 사회 등에서 추가로 1개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학 입학 자격에 국어, 수학, 외국어 등 일반교과의 이수가 요구되고 있었기에 일반교과의 도입은 직업계열 졸업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었다.

11) 통합 중등학교는 학문계열과 직업계열의 균형을 추구하였지만 지역적 조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의 현실화는 매우 어려웠다. 1979년 조사에서 총 340개의 김나지예스콜라 중 두 계열을 모두 개설한 학교는 143개에 그쳤고 117개는 직업계열만, 80개는 학문계열만 개설되어 있었다. 두 계열이 모두 개설된 학교에

나 사용자들은 통합 학교의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직업계열 학생 수의 감소는 진학 보류자와 중도탈락자의 급증, 그리고 고용 전망의 악화 때문이었다. 종합학교 졸업 후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진학을 하지 않는 진학 보류자와 입학 후 그만두는 중도탈락자는 직업계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sup>12)</sup> 학생이탈의 주원인은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편제의 낙후성과 교육의 부실함으로 지목되었다. 직업교육의 부적절성과 수준저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고용주들이 일반계열 출신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Young, 1993: 210; Oppen, 1989: 145, 151-152; Nilsson, 1983:40).

7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청년실업 또한 직업교육 문제를 부각시켰다. 2% 내외를 유지한 전체 실업률과는 달리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16-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80년대 초반 10%를 넘어섰다. 노동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상향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10대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80년대 초반의 실업대책은 이들의 고용률을 제고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Ryan, 2001: 69; Statistiska Centralbyrån). 이 속에서 청년실업 대책은 점차 이들을 후기중등학교로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하면서 졸업 후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직업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속에 사용자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기업의 노동 현장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도제식 교육의 실험이 1980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기업기반 직업훈련(enterprise-based training)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애초에 추구했던 현대화된 노동 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

서도 교육과정의 실질적 통합은 난항을 겪었고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여전히 계열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Nilsson, 2009: 17; Boucher, 1982: 115-116.

- 12) 후기중등학교 입학자 중 종합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지 않고 1-2년 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 2%였다가 1979년에는 15%에 이른다. 직업계열의 중도탈락률은 10-20%에 달했는데 1지망 탈락률이 학문계열이 5% 내외였는데 반해 직업계열은 25%가 넘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졌다. Nilsson, 1983: 40; Boucher, 1982: 108-110.

몇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노사는 직업계열에 대한 학생의 선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Nilsson, 2009: 18-19; Lundgren, 2007: 9; Boucher, 1982: 120-121).

1984년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LO와 SAF는 2년제 직업계열을 모두 3년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업교육 3년제 필요성의 주된 근거는 미래 노동환경에서의 적응성과 유연성의 제고였다. 국제경쟁의 격화와 노동환경의 급변속에 직업교육은 직업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와 지식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노동 및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기간을 1년 늘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모두 내실 있게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고등교육 진학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Nilsson, 2009: 19; Olofsson, 2005: 22).

3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1991년 후기중등교육 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변화의 핵심은 공통 일반교과의 확대를 통한 이론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의 강화와 3년제로의 교육기간의 통일이었다. 1971년 통합 당시 14개, 8개였던 직업계열과 학문계열의 수는 각각 14개, 2개로 정비되었고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등 8개 교과가 공통으로 지정되면서 일반교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직업교육의 기간 연장과 일반교과 시수의 증대<sup>13)</sup>로 직업계열 학생들에게도 졸업과 동시에 학문 계열과 마찬가지로의 대학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Lundahl et al., 2010: 49-50; Lundgren, 2007: 14-15).

경제계의 요구를 토대로 한 시민당의 개혁에 대하여 보수당과 자유당은 반대하였다. 직업계열에 비해 학문계열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학문교육이 훼손되고 양자의 과도한 통합으로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였다. 또한 직업마다 필요한 교육 기간이 다른데 이를 3년으로 획일화하여 필요 이상의 교육을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장기간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13) 직업계열 3년간 총 시수에서 일반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이다. Lundgren, 2007: 15.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사민당과 LO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 능력과 생애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폭넓은 지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스웨덴 사회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을 힘겹게 반복하는 집단과 교육받은 지식에 근거해 도전적이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나가는 집단으로 양분되는 위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Lundahl, 1998: 45-47).

개혁안은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보수당과 자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1994년 새로운 후기중등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 3.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 형성의 조건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 형성은 사회구조의 변동과 의도적 개혁이라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이 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속에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하에서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제도가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중등교육 개혁이 통합형 체제의 형성으로 귀결되도록 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 3.1 개혁의 동인

중등교육 개혁의 동인은 경제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후기중등교육의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 되기 시작한 1950년대와 80년대는 모두 산업구조의 이행과 이에 따른 고용 및 계급구조의 변화 시기였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특정 형태의 노동력 필요와 이와 연결된 교육에 대한 계급별 이해의 양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계급구성의 변화를 통해 사회 내 세력분포의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후기중등교육체제의 변화를 가져온 기본 동인이라 하겠다.

양 개혁의 경제적 조건은 포디즘 체제의 확산과 퇴조이다. 이는 필요 노

동력의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중간 수준의 표준화된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특징으로 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 고기술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이와 맞물린 숙련-미숙련 노동직 간 격차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기계 설비와 테일러주의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의 확산은 표준화된 중간 수준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동반하였다. 표준화된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는 직업교육의 확대와 체계화를 필요로 하였는데 기존의 도제 방식 직업훈련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이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직업교육의 확대 개편으로 이어졌고 직업교육의 학교 교육화라는 제도적 맥락을 형성하면서 중등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를 거치며 스웨덴은 후기산업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포디즘 체제의 퇴조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라는 경제적 조건의 유동은 직업교육의 개편 문제를 다시 부상시켰다.

포디즘적 대량생산체제를 대표하던 제조업 강세의 퇴조와 공공부문 및 서비스 부문의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요 노동력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철강, 조선 등의 제조업이 하강기에 접어들면서 육체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고 전자통신 등 새로운 부문의 등장으로 고기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자본 진영의 관심은 ‘유연성’으로 집중되었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후기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맞물려 노동력의 자격에 대한 요구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져 후기중등교육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경제구조의 변화가 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1971년과 1991년 개혁 모두 직업교육 문제가 중심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이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동등화로서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에는 개혁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에 작용한 스웨덴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조건이 있었다.



### 3.2 이념적·정치적 조건

‘스웨덴 모델’의 성공을 거치며 정립된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적 우위와 스웨덴 노동진영의 계급 노조주의(class unionism)는 중등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규정하였다.

평등과 성장을 결합하는 스웨덴 사민주의에서 교육은 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사민주의의 헤게모니가 공고해지면서 평등과 통합은 학교교육의 준거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는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을 때 문제설정의 틀을 지배하였다. 평등과 통합, 민주주의의 우선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문제의 규정과 논의의 경계,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는 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질(quality)보다는 분리와 통합이라는 평등(equality) 관련 의제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 스웨덴 사회의 핵심적 의사결정자가 된 노동 진영은 중등교육 개편 시기에 계급 노조주의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개별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법학교 민주화의 방향이 아닌, ‘계급의 교육’인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를 통한 노동계급의 지위 상승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20세기 초 보통선거권 획득 투쟁과 연대임금제에 대한 내부 합의 도출을 통해 계급 연대의 경험을 쌓으면서 개별 기업이나 부문의 이해를 넘어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 노조주의를 발전시켰다(안재홍, 1996: 515-516; Pontusson, 1994: 41-42). 이러한 계급 노조주의의 관점은 중등교육에서 계열별 계급 편중과 지위 격차가 문제시되고 직업교육 위기론이 대두되었을 때 사회적 인정과 선호가 물리는 학문계열에의 노동자의 개별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학문교육과의 동등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을 해결 방안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이러한 이념지형은 적잖이 변화하였으나 평등과 통합의 우선성이라는 학교교육의 기본적 준거틀은 상당 정도 유지되었고 1991

년 개혁의 주요 명분을 구성하였다.<sup>14)</sup>

그러나 중등교육 개혁이 학문·직업교육 간 동등화로서의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단지 평등주의의 이념적 우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통합은 해당 시기 스웨덴 사회 각 계급의 이해의 공통성에 기반한 계급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1950-60년대 교육 부문에서의 사회 각 계급의 요구는 중등교육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본격 성장하기 시작하는 중간계급은 물론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동계급에서도 중등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종합학교 개혁 및 후기중등학교들의 정비·확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모두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1980년대를 거치며 고등교육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였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에 따라 진학 자격 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 중간계급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추세는 청년실업의 증가가 의미하는 직업계열 출신의 고용 전망 악화와 맞물리면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통합형 체제는 이러한 증대되는 교육 요구를 공통의 이해로 묶어내는 방식이었다. 직업학교/계열 입학생의 감소로 나타난 중등교육기회에 대한 선호의 불균형은 직업교육의 위상 저하라는 측면에서 노동 진영에게 문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부족과 수준 저하라는 측면에서 자본 진영에게도 문제시되었다. 직업교육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 학교교육으로 제도

14) “스웨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사회평등, 통합, 사회정의이다. 우리는 교육의 질만 얘기하지 않는다. 학교를 분리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서 일할 때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능력에 따라 학교를 분리해 놓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전체적인 사회공동체가 문제가 된다. 스웨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이다.” Lundgren 교수 면담, 2012년 1월. 1984년 조사에서 “공공부문은 협상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62%가 동의 하였고 “국가는 스웨덴과 같은 사회에서 저질로 재생산되는 부정의(injustice)를 교정하기 위해 평등화 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75%가 동의 하였다. 80년대 내내 초중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 지지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았다. 김영준, 1996: 215; Steinmo, 2010: 82.

화된 상황에서 후기중등교육의 통합화는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라는 노동 진영의 요구는 물론 양질의 노동력 수급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자본 진영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이었다.<sup>15)</sup>

1991년 통합에서 자본 진영의 지지 입장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동 계급의 정치적 우위가 분명했던 1971년 개혁 시기와는 달리 80년대를 거치며 노-자 간 세력관계는 자본 진영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사회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된 자본 진영이 통합화에 찬성함으로써 1991년 개혁은 노동시장 양 당사자의 합의라는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후기중등교육의 재편은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동시 확대 및 고등교육 진학 자격의 확대, 그리고 학문-직업교육 간 위계의 해체와 동등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교육 부문에서의 제 계급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에 조응하는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경제적 필요와 평등 및 연대 이데올로기 창출이라는 사회 정치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개혁은 스웨덴 사회 주요 계급들 간의 이해의 공통성을 창출하였고 다시 그 공통성에 기반 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스웨덴 사회 주요 계급들이 통합화라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통 이해에 기반한 이러한 사회적 동의를 구축은 의회 권력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체제가 형성 및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조건이었다고 하겠다.

### 3.3 제도적 조건

20여 년에 걸쳐 진행된 후기중등교육의 개편이 스웨덴 사회의 정치, 경제, 이념적 맥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체제로 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리를 제약하고 통합으로 유인하는, 개혁의 전개를 구조화한 제도적

15)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 전부 다 자질이 높아지면 기업은 훌륭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직업교육에 이론편교육을 넣는 것을 찬성하고 1971년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Bergström 교수 면담, 2012년 1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직업교육의 학교 교육화와 종합학교 개혁에 따른 직업교육의 후기중등학교로의 이월이라는 직업교육의 제도화 과정은 통합형 체제 형성의 유인구조로 작용하였다.

1940년대 이후 중앙 집중적 국가교육체제의 성립은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종합학교 개혁으로, 후기중등단계에서는 직업교육의 학교교육화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이 학교를 기반으로 제도화되면서 스웨덴의 후기중등교육제도는 새로운 경로로 접어들었다. 노동시장 영역에서 행해지는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으로 행해지는 일반교육이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교육이라는 단일한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10대 후반 연령대를 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의 준거를 이루고 있던 평등과 통합의 문제를 안으로 포섭되었다. 노동력 양성의 효과성이라는 기존의 경제적 관점 외에 평등과 민주주의,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관점이 직업교육 문제의 준거로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문제는 평등과 통합의 문제로 쉽게 전화될 수 있었다.

한편, 직업교육이 후기중등단계의 학교교육으로 정립됨에 따라<sup>16)</sup>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도제식 직업교육의 발전은 더욱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작업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교육과의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은 집행의 현실적 토대를 갖추기 어려웠다. 현장 기반 교육 훈련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교육역량과 학교-기업 간의 유기적 협조 및 역할 분담 체제가 충분히 마

16) 직업교육이 후기중등단계의 학교교육으로 제도화된 데에는 종합학교 개혁의 영향이 컸다. 종합학교 개혁으로 인한 전기중등단계의 통합교육은 도제제도와 양립하기 어려웠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도제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선발적인 전기중등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Green, 1999: 67). 계열 분리가 선발이 아닌 선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시기도 종합학교 마지막 학년으로 늦추었다가 아예 분리 자체를 없애버린 종합학교 개혁은 전기중등단계의 분리와 연결되는 도제교육의 존재양식을 해체하면서 직업교육을 의무교육 이후 단계로 이월시켰다. 공립 직업학교에서의 전일제 교육이 직업교육의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이월은 교육기간의 단축과 표준화와 맞물려 직업교육을 후기중등단계 국가교육체제의 한 부분으로 정립시켰다.

런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중등교육 팽창 시기와 맞물린 직업교육의 제도화 과정은 후기중등교육에서 분리의 흐름을 제약하고 통합의 방향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건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후기중등교육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통합의 방향성을 강화하였다. 중등교육 개혁의 시작 단계부터 주요 과제로 자리 잡은 성인노동자의 재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한 제공과 노동 간 이동(가능)성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정규 입학생의 수를 훨씬 웃돌 정도로 대규모화된<sup>17)</sup> 후기중등단계의 성인교육은 능력이 아닌 필요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았고<sup>18)</sup> 이는 분리의 선발적 성격을 약화시키면서 계열 구분의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제거하였다. 노동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추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1차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후기중등교육에서의 분리의 유연화를 지지하는 흐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인교육 수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현상으로 확인된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는 진학자격의 확대와 이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행 개혁들을 통한 제도적 동형성의 확보는 개혁이 초래할 변화의 폭과 깊이를 단순화함으로써 통합형 체제로의 변화가 야기할 사회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켜 제도 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 1940-50년대 진행된 종합학

17) 1971년 출범한 통합 후기중등학교의 입학생 수는 75,000명 수준이었는데 동 기관의 성인교육 학생 수는 117,000명에 달하였다. 이 중 직업교육 계열이 과반을 점하고 있기는 하나 계속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생의 비중도 상당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직업교육 계열의 교육생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Nilsson, 1983: 40; SCB.

18)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성인교육은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공교육으로 간주되어 무상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권리들이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1. 공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이다. 2.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휴직 기간 중 직장이 보장되어 교육을 마친 후 즉시 복직할 수 있다. 4. 교육기간 중 국가로부터 대어 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다. 한승희, 2005: 74-75.

교와 직업교육 개혁을 통해 스웨덴에서는 사립학교가 거의 사라졌다. 원래부터 국립이었던 김나지움과 대학을 포함하여 1960년대에 이르면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체제의 사실상 모든 교육기관들은 국가가 그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립학교가 되었다. 동시에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상교육의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초중등교육은 무상 공교육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행정과 재정이 일원화되면서 국가의 정책 의지가 관철되기 쉬운 제도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상급단계 진학을 결정하는 졸업자격시험이 폐지되고 내신을 중시하는 입학사정의 형태로 진학 방식도 동일해져 있었다.

이러한 동형성은 분권화의 진행 속에서도 유지되었고 따라서 학교 통합이나 고등교육 진학 자격 부여 등의 개혁은 기존의 제도적 틀을 뒤흔들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제도적 이형성이 높을수록 연동된 체제 간에 변동의 다층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정합과 관련 이해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동형성의 확보는 개혁의 물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통합형 체제로의 제도 변화를 용이하게 만든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4 중층적 제도로서의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

종합학교 개혁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대체(displacement)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기중등교육의 개혁은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기존 제도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서 기존 제도의 성격이 변화하는 중층화(layering)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서로 다른 교육기관들

19)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은 제도 변화의 양상을 대체(displacement), 중층화(layering), 표류(drift), 전화(convers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 대체(displacement)는 기존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것, 중층화(layering)는 기존 제도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서 기존 제도가 행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표류(drift)는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되나 외부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그 영향력이 바뀌는 것, 전화(conversion)는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Mahoney &

이 하나의 학교로 통합되고 나아가 교육과정과 졸업자격의 통합까지 이루어졌지만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로 구분하는 이전 시기의 복선체적 구조는 학교 조직의 내부로 들어온 채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위계적 분리라는 기존의 제도가 갖고 있던 계열 구분의 성격은 동등화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통합형 체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기존의 제도(복선제)가 새로운 제도(통합형 학교)의 틀 안에서 그 형식을 유지하되 기존 제도가 행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스웨덴식의 통합은 제도의 중층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후기중등교육 통합이 제도의 대체가 아닌 중층화라는 점은 새로운 제도의 성격과 기존 제도의 관성 간에 이질적 공존 내지는 마찰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평등을 표방하면서도 필요교육의 위계적 구분이 유지되거나<sup>20)</sup> 동등화·유연화의 추진과 도제교육의 확대 시도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중층성에 기인한 제도 내부의 부정합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합은 제도를 둘러싼 제반 조건이 변화할 경우 제도의 내적 긴장을 높여 제도 내부의 중층적 구조의 재조정 내지는 제도 자체의 변경이라는 변화에의 압력을 상승시킨다. 1971년과 달리 1991년의 개혁에 정치적 반대가 있었던 것은 중층적 제도의 내적 긴장이 조건의 변화를 맞이하여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조건의 변화는 기존 제도의 관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적인 구조를 재설정하는 제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

Thelen, 2010: 1-32).

20) 1971년의 학교 통합은 학문계열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물론 직업계열과 학문계열의 교육기간의 차이 또한 유지한 채 이루어졌는데 이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필요교육의 위계적 구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 Englund, 1988: 21-22.

## 4. 결 론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은 민주주의와 직업교육이라는,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평등과 성장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시민주의 체제를 통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은 학문-직업교육 간 동등화에 대한 압력을 생성하면서 통합으로의 변화를 유인하는 제도적 조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해 당사자의 조직화된 대표 체계가 잘 발달된 스웨덴에서는 개혁을 둘러싼 집단적 이해와 요구, 그리고 필요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계급타협에 기반한 조합주의적 체제는 이를 사회적 합의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교육개혁에서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조건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이념적 공통성과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제도적 동형성의 확보는 스웨덴의 교육개혁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 교육개혁의 이러한 조건들은 우연성과 특수성에 힘입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창출된 것인 동시에 지속적인 제도 개혁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적 행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조건들에 제약받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가 의도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의도적 행위의 누적에 결국 구조의 결합을 이완·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스웨덴 사례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후기중등교육체제에 대한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은 정치와 경제라는 두 축으로부터 발원하는 민주주의와 직업교육 문제가 제도를 통해 상호 교섭하는 과정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통합형 교육체제 형성의 경로가 민주주의의 진전 시도라는 단선적 과정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직업교육 필요의 전면화와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시기의 조응, 도제 제도의 현대화 실패에 따른 직업교육제도의 저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직업교



육 개편 필요성의 대두, 그리고 중앙집중적 국가교육체제의 성립이 맞물린 스웨덴의 경로는 민주주의의 진전으로서의 평등과 통합 추구의 이면에 산업 및 노동 영역에서 배태된 힘들의 작동이 있었으며 이러한 힘들이 통합의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조율하고 가압하는 역할을 한 제도적 조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업의 필요에 따른 직업교육의 요구와 조직 노동의 정치적 힘에 기반한 평등의 요구가 조합주의라는 계급타협 체제를 통해 통합형 후기중등교육체제를 만들어 낸 스웨덴의 사례는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이 정치와 경제라는 두 영역에서 배태된 상이한 힘들의 교섭의 결과이며 그러한 교섭의 구체적 결과는 해당 시기의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에 규정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은 정치와 경제의 동학, 그리고 이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제도의 작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라야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은 그와 관련을 맺는 각 조건들의 시계열적 배치와 그 진화의 양상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 따라 ‘시간성’이 개입될 때 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제도변화 경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역사적 경험과 행위의 결과인 제도적 구조의 형성 간의 시기적 조응 또는 엇갈림이 빚어낸 결과이다. 중등교육 팽창 이전에 산업화에 따른 도제식 직업교육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독일이나 1950년대까지 농업국가적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중앙교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교육개혁의 시기는 스웨덴과 거의 비슷했던 핀란드가 중등교육 개혁에서 상이한 경로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조건들의 유무만큼이나 이들의 시기적 배치가 제도변화의 경로를 규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성의 개입은 역사적 결과로서의 제도를 진행 중인 적응과 진화의 한 국면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현상으로부터 포착하기 힘든 변화와 유지의 내밀한 차원에 대한 해명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 결과로서의 현재의 국면을 구성하는 각 맥락들의 변화 및 유지의 양상과 추이를 해명하는 작업은 현재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제도변화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

셋째,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은 교육체제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 미국식 단선제와는 달리 학문-직업교육의 구분을 유지하는 유럽식 복선제는 정신-육체노동의 구분과 연결된 분리 지향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내생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여겨져 왔다(Young, 1993b: 212-213). 통합학교 내 계열 구분의 유지라는 중층적 제도로서의 스웨덴의 체제 또한 1971년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된 계열별 격차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러한 경향성이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통합형 체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분리를 유연화하고<sup>21)</sup> 교육체제의 계급 교차적 성격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학문-직업교육의 구분 속에서도 이를 엘리트-보통교육의 구분과 동조시키는 교육계열 간의 위계와 능력주의적 교육관을 약화시켰다.<sup>22)</sup>

이는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이 학문-직업교육의 구분 여부라는 단선적인 기준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각 제도들의 배치와 속성, 그리고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등 연계된 체제의 제도적 구조는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며 제도의 결합과 작동이 통합 또는 분리 지향의 성격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중등교육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교육체제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결합태와 작동 기제에 대한 검토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직업계열을 졸업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수학, 영어, 스웨덴어 점수 더 따서 자격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스웨덴은 교육기회를 보충할 기회가 많이 있다. (사민당 집권 시절에 비해) 좀 좋기는 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아직도 보충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다. 스웨덴은 평생교육체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한번 잘못 선택해도 길이 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다. 고등학교 잘못 선택해도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었다. 조금 그 길이 줄었다 뿐이지 약간 돌아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길이 있다.”, Fredriksson 교수, 2012년 1월 면담.

22)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을 받아도 돈을 많이 번다. 남학생들은 전기공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여학생들은 대학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제적 메리트가 큰 게 아니다. 교육받고 나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의 진학률이 여학생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남녀차이가 더 문제가 된다.” Lundgren 교수, 2012년 1월 면담.

스웨덴 후기중등교육체제의 형성과정은 스웨덴 사회 내·외부의 조건들이 빚어낸 다양한 흐름들의 상호 중첩 과정이었다. 경제, 이념, 정치, 제도상의 고유의 맥락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과정을 구성하였다. 선행 변화로부터 구축된 제도적 조건은 이념의 형성과 정치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정치·이념적 조건이 제도 변화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조적 변동과 역사적 우연성이 복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체제의 형성과정은 그 사회의 총체적 작동방식과 변화의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자 그 역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는 해당 사회의 다양한 맥락들이 특정한 양상으로 직조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 사회적 조망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동시에 특정 방향으로의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개혁은 그 사회의 다층적인 변화의 결을 살피고 이들의 흐름을 결합해낼 수 있는 안목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재홍. 1996.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9(3), pp.493-523.
- 이규환. 1997. 『선진국의 교육제도: 비교교육학적 기초』. 서울: 배영사.
1971. 『서독과 서전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 이윤미. 2002. “프랑스 중등교육 개혁의 시사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29(2). pp.57-79.
- 이윤미·장심미. 2011. “스웨덴의 통합형 후기중등학교 개혁: 전개과정 및 쟁점”. 『한국교육사학』. 33(2). pp.97-123.
- 한승희. 2005. 『북유럽 평생학습정책 추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평생학습추진 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honen, Sirkka. 2001. “The end of the common school? change in the ethos and politics of education in Finland towards the end of the 1900s”. In S. Ahonen & J. Rantala(eds.). *Nordic lights: education for nation and civic society in the Nordic countries 1850-2000*. pp.175-203. Studia Dennica: Historica 1. Helsinki: Finnish Literature Society.
- Englund, Tomas. 1988. “Curriculum as a political problem: a histor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A. 5-9 April. 1988.
- Boucher, Leon. 1982. *Tradition and change in Swedish education*. Oxford: Pergamon Press.
- Dahllöf, Urban S. 1986. *A survey of the main reform steps in Swedish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Uppsala University.
- \_\_\_\_\_. 1966. “Recent re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 Sweden”.

- Comparative Education*, 2(2), pp.71-92.
- Green, Andy. 1999. "Education and globalization in Europe and east Asia: convergent and divergent trend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4(1). pp.55-71.
- Heidenheimer, Arnold J. 1976. "Professional unions public sector growth and the Swedish equality policy". *Comparative Politics*. 9(1), pp.49-73.
- \_\_\_\_\_. 1974. "The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 explaining different outcomes of school comprehensivization attempts in Sweden and West Germany".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18(3). pp.380-410.
- Husén, Torsten. 1969. "Responsiveness and resistance in the educational system to changing needs of society: some Swedish experienc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5(4). pp.476-487.
- \_\_\_\_\_. 1965. "Educational change in Sweden". *Comparative Education*. 1(3). pp.181-191.
- Lindensjö, Bo. 1992. "From liberal common school to state primary school: a main line in social democratic educational policy". In Klaus Misgeld et al.(eds.). *Creating social democracy: a century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 in Sweden*. pp.307-337.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Lundahl, Lisbeth. 1998. "Still the stepchild of Swedish educational politic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eden in the 1990s". In Lisbeth Lundahl & Theodor Sander(ed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Germany and Sweden*. Umeå: The Thematic Network of Teacher Education in Europe.
- \_\_\_\_\_. 1989. *I moralens, produktionens och det sunda förnuftets namn: Den svenska högerens skolpolitik 1904-1962 (In the name of morality, production and common sense: The Swedish right-wing school policy 1904-1962)*. doctoral dissertation. Lund University.
- Lundahl, Lisbeth, Inger Erixon Arreman, Ulf Lundström & Linda Rönnerberg.

2010. "Setting things right? Swedish upper secondary school reform in a 40-year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5(1). pp.46-59.
- Lundgren, Ulf P. 2007. *Vocational education: the case of Sweden in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context*. Department of Education Uppsala University.
- \_\_\_\_\_. 1982. "Between schooling and education: notes on curriculum changes within the second generation of school reforms in Sweden".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York, 19-23 March, 1982.
- Mahoney, James & Kathleen Thelen. 2010.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James Mahoney & Kathleen Thelen(ed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pp.1-3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lund, Sixten. 1978.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the Swedish upper secondary schoo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24(2). pp.197-206.
- Marklund, Sixten & Gunnar Bergendal. 1979. *Trends in Swedish educational policy*. Stockholm: The Swedish Institute.
- Nilsson, Anders. 2009. "From one model to the other: Swedis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4th educational history conference of 20th centur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Uppsala University. 1-2 October, 2009.
- Nilsson, Lennart. 1983. "Vocational education in Swedish secondary schools: trends and reform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8(1). pp.31-43.
- Norinder, Yngve. 1957. "The evolving comprehensive school in Swede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3(3). pp.257-274.
- Olofsson, Jonas. 2005. "Stability or change in the Swedish labour market regime?" *Arbetsrapport/Institutet for Framtidsstudier* (Working paper

- of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2005:18.
- Opper, Susan. 1989. "Sweden: the 'integrated' upper secondary school as main provider of vocational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24(2). pp.139-157.
- Paulston, Rolland G. 1968. *Educational change in Sweden: planning and accepting the comprehensive school reform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Pontusson, Jonas. 1994. "Sweden: After the golden age". in Perry Anderson & Patrick Camiller(eds.). *Mapping the west European left*. pp.23-54. London: Verso.
- Ryan, Paul.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pp.34-92.
- Skolöverstyrelsen(The National Swedish Board of Education). 1971. "The integrated upper secondary school: three schools in one".
- Statistica Centralbyrån(The Nationa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k Årsbok för Sverige (Statistical Yearbook for Sweden)*
- Steinmo, Sven. 2010.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 Swed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lhaug, Alfred O., Odd A. Mediås & Peter Aasen. 2006. "The Nordic model in education: education as part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last 50 year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pp.245-283.
- Young, Michael. 1993. "Bridging the academic/vocational divide: two Nordic case studie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28(2). pp.209-214.
- Göran Bergström 교수 면담. 2012년 1월 9일
- Ulf P. Lundgren 교수 면담. 2012년 1월 10일
- Ulf Fredriksson 교수 면담. 2012년 1월 12일
- ※ 면담 대상자 소개
- Göran Bergström

-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1976년-90년 기간 동안 후기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함.
- 1970년대 사민당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스톡홀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음.

Ulf P. Lundgren

- 웁살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970년대 이래 교육 개혁 과정에 연구진 및 책임자로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

Ulf Fredriksson

- 스톡홀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국제 비교교육 연구 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근무



<Abstract>

## The formation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Sweden

Chang, Sinmee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the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reform in Sweden that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omprehensive upper secondary school.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feature of educational reform of Swedish secondary school is that the problem of vocational education had the central position of the reform. The reform was consistently intended to make the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equivalent to that of academic education.

Second, the integration of vocational and academic education became main agenda of the reform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needs of vocational education originated from industrial change and the political feature of corporatism.

Third, the reform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omprehensive upper secondary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contents of reform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he contents of the reform maximized political supports for it by embracing various class interes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mbedded context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resulted from previous reforms imposed constraints on differentiation, and induced integration.

Fourth, the analysis on Swedish case implies that institutions

regulate the process of educational formation, and therefor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educational system is necessary. The analysis of institutions that intermedate the dynamics of politics and economy can explai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will lead u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ducational system in a more accurate manner.

Keywords: Sweden, upper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reform, vocational education, integration, differentiation

---

성명: 장신미  
소속: 홍익대학교  
전화번호: 02-857-6405  
E-mail: owen9966@gmail.com

논문접수일: 2013. 8. 5      논문심사일: 2013.8.15      게재확정일: 2013.8.25